

후기고령사회 복지서비스에 관한 성경적 고찰

황 에스더 (백석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초록

본 논문은 후기고령사회 복지서비스에 관한 성경적 고찰로 통계를 통해 먼저 후기고령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후기고령사회를 이해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인본주의 관점에 기초한 일반 복지서비스이므로 의, 식, 주 건강 등에 관심을 가지지만, 전인적인 복지 서비스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적 복지서비스는 신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반복지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지까지 다룬다. 성경에 비추어볼 때 성경적 복지서비스는 구원에 까지 관심을 가지기에 일반 복지서비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 즉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경적인 복지 서비스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이런 차원에서 성경적 복지서비스를 예수그리스도의 사역과 절망감에 있는 성경의 인물 사례를 살펴보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인간에 대한 귀중함과 후기고령사회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의미와 가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후기고령사회, 인권, 복지서비스, 성경과 복지사상,

I. 서론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은 유엔 2차 세계 고령화회의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인간의 존재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뀌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고령화를 ‘사회혁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화두로써 ‘인구 충격(age-shock)’, ‘인구대역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¹ 그러나 후기고령사회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많은 문제들을 제기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노인문제는 노인복지의 영역에서만이 아닌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나 일상적인 사회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후기고령사회의 도래로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발현과 함께 노년기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건강 등 성취했던 것들을 점차 상실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들은 개인적으로 신체적, 경제적, 의존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²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재가노인의 약 91%가 한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전체 노인의 17.83%가 한 가지 이상의 일상생활활동(ADL)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힘든 점이 있다는 노인이 50.8%이고, 그 어려움으로는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이 43.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22.4% 사회활동의 제한 17.0% 외로움·소외감·자존감 상실 등 15.8%,간호와 수발에 따른 어려움 0.9% 등이다.³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201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사례를 받은 노인은 총 3,532건 중 여성노인은 2,479명으로 70.2%, 남성노인이 1,053명으로 29.8%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 노인에 비해 많았다. 여성 노인의 경우 신체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아 남성노인에 비해 학대에 노출된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연령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70대와 80대를 중심으로 발생 비율이 분포되어 있고,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이 1,504명(3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588명(15.2%) 딸이 476명(13.3%)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대 행위자는 친족의 경우가 2,882건 74.3%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여전히 노인 학대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에 따른 학대 유형은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¹ 김윤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인식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² 최성재.장인협,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24-26.

³ 정경희, 「2004년도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3.

에서 정서적 학대가 2,169건 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체적 학대 1,426건 24.7%, 방임 984건 17.0%, 경제적 학대 521건 9.0%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전체 노인학대사례 중 학대발생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1,204건(34.1%)으로 가장 높았고, “매일”학대를 당한다는 응답이 898건(25.4%), “1개월에 한번이상”이 768건(21.7%) 등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학대발생빈도 “3개월에 한번 이상” 164건(4.6%), “6개월에 한번 이상”156건(4.4%), “일회성” 342건(9.7%)의 학대발생빈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학대의 절반이상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의도적인 무관심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노인학대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노인부양의무와 과중한 부양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병든 노인을 그대로 집에 방치하거나, 유기 등과 같은 극단적인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⁴

2015년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12분마다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71%가 여성이다. 서울시 치매센터에 의하면 국내 치매 인구는 61만 명이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80대가 되면 3명 중 1명 꼴로 치매가 발병한다. 고령 사회를 맞아 노화 관련 질병인 치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치매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955 - 63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700만 명으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해가 2016년이기 때문이다. 김기웅 중앙치매센터 센터장은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병”이라며 “본인은 치매가 아니라도 가족이 치매에 걸릴 수 있고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⁵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1,870만 여 가구 중 독거노인 1인 가구가 504만여 가구로 27%에 이르고 있다. 그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37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빈곤 등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혼자 생활하는 것에 만성적 습관화되어 외로움을 삭히고 있으며 사회활동의 기회가 차단된 채 사망해도 장기간 방치되는 실정이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자살자 수도 연간 1만4,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38명(전국)이 자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고독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⁶

또한 사회에는 질병, 소외, 빈곤, 불평등 등과 같은 많은 후기고령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이기에 인류역사에서 어느 때든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어왔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인간은 모든 삶의 영역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기

4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5 나우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 센터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 2016. 2. 17.

6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http://www.bonghwa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 2016. 5. 15.

때문이다. 사회에서 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인간의 활동에 연결되어 있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⁷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 집단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서비스 체계와 법제를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에 대한 봉사, 평등의 실현, 사회질서의 원활한 기능수행, 생활의 안전망 등 사회복지의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⁸

따라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교회 또한 노인복지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노인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병식(2012)은 고령화 사회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현대사회의 문제로 등장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성진(2008)은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목회연구에서 노인 봉사학교 운영의 필요성을 교회에 인식시켰으며 노인 봉사활동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 노인 자신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얻게 함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으며 노인봉사활동은 교회에도 많은 실익을 가져오며 노인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스스로가 삶의 보람을 찾는 동시에 유익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교회와 노인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김동일(2001)은 그의 논문 장수시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생존전략에서 노인들은 먼저 가족이나 정부의 노인복지 대책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생존전략의 수립과 생산능력의 배양을 통해 장수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있어서 노인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강조하였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는 인본주의 관점에 기초한 일반 복지서비스이므로 의, 식, 주거, 건강 등에 관심을 가지지만, 전인적인 복지 서비스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복지 뿐만 아니라 영적인복지 ---성경에 비추어볼 때 ----하지만 성경적 복지서비스는 구원에 까지 관심을 가지기에 일반 복지서비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 즉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경적인 복지 서비스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엔 이런 차원에서 성경적 대안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절망감에 있는 성경의 인물 사례를 살펴보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인간에 대한 귀중함과 후기고령사회 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의미와 가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7 정중현(2006),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6.

8 남희수,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20.

II. 후기고령사회 복지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1. 후기고령사회 이해

1,200여 년 전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가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사람이 70세 까지 사는 것은 옛날부터 드문 일 이라고 했던 것은 아득한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인생일백고래희(人生一百古來稀)’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100세 이상 고령 인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 연장은 개인과 가족에게는 소원 성취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부담을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⁹

노인복지법 제8조 등에 의하면 노인이란 고령화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퇴화현상으로 인하여 사회기능 수행에 장애가 초래됨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퇴화현상은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며 따라서 퇴화현상 여부에 따른 노인에 대한 정의는 각종 사회복지법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사회복지법에서는 급여 대상의 노인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는 연령이 노인을 정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이라고 인정하는 연령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¹⁰

인구고령화는 한 국가사회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median age)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망률의 저하로 국가사회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의 저하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¹¹

UN에서 분류한 분류체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1%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1% 이상인 사회를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며 이 분류체계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¹²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후기고령사회의 이해를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인구 추이

인구추이에 대한 2015년 통계청 고령자통계를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이고 <그림 2>에서와 같이 전체의 13.1%이며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대로 전망하고 있다. 준 고령(50~64) 인구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약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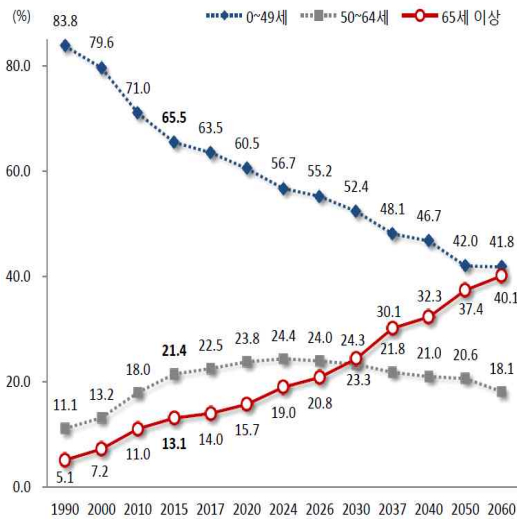
⁹ 최성재·장인협,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3.

¹⁰ 채수훈 편,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서울: 인간과복지, 2000),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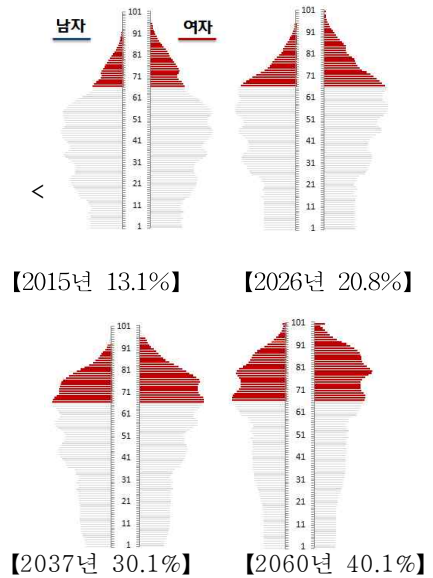
¹¹ 최성재·장인협,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8.

¹² 최성재·장인협,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10.

후인 2024년까지 증가 후 차츰 감소 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선 이후 2017년에는 두 배인 14%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2015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 8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그림 2] 고령자 인구 비중

<표 1> 고령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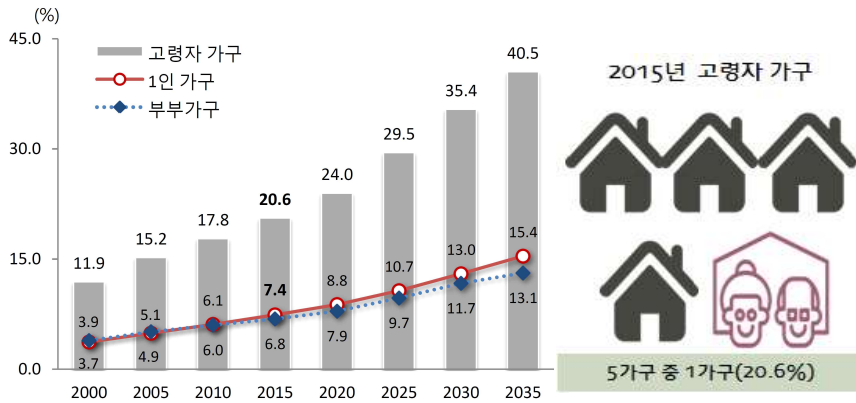
	추계인구	0~49세		50~64세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990	42,869	35,906	83.8	4,768	11.1	2,195	5.1
2000	47,008	37,424	79.6	6,189	13.2	3,395	7.2
2010	49,410	35,080	71.0	8,878	18.0	5,452	11.0
2015	50,617	33,139	65.5	10,854	21.4	6,624	13.1
2020	51,435	31,117	60.5	12,234	23.8	8,084	15.7
2030	52,160	27,313	52.4	12,156	23.3	12,691	24.3
2040	51,091	23,872	46.7	10,718	21.0	16,501	32.3
2050	48,121	20,207	42.0	9,923	20.6	17,991	37.4
2060	43,959	18,372	41.8	7,966	18.1	17,622	40.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12.

(2) 고령자 가구

고령자 가구 추이에 대한 2015년 통계를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고령자 가

구(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는 385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6%를 차지하였으며, 2035년에는 40.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림 3]에서와 같이 2015년 현재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이나, 20년 후인 2035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고령자 가구 추이

<표 2> 고령자 가구 추이

	총가구	고령자 가구	구성비2)	고령자 가구 유형					
				부부가구	구성비2)	부부+자녀가구	구성비2)	1인가구3)	구성비2)
2000	14,507	1,734	11.9	573	3.9	184	1.3	544	3.7
2005	15,971	2,432	15.2	822	5.1	249	1.6	777	4.9
2010	17,359	3,087	17.8	1,038	6.0	297	1.7	1,056	6.1
2015	18,705	3,852	20.6	1,280	6.8	352	1.9	1,379	7.4
2020	19,878	4,772	24.0	1,569	7.9	437	2.2	1,745	8.8
2025	20,937	6,172	29.5	2,028	9.7	587	2.8	2,248	10.7
2030	21,717	7,690	35.4	2,533	11.7	719	3.3	2,820	13.0
2035	22,261	9,025	40.5	2,919	13.1	791	3.6	3,430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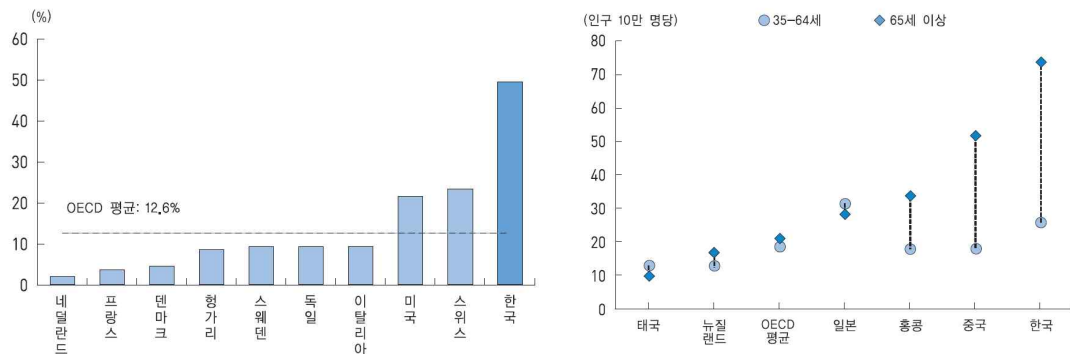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2. 4.¹³

- 주 :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총 가구 중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3)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3) 노인 삶의 국제 비교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 하지만 한국 노

¹³ 통계청 <http://sgis.kostat.go.kr/publicmodel>

인의 현실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OECD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평균 12.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세계노인복지지표(Global AgeWatch Index)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와 캐나다, 미국 등 북미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이다. 한국은 60위에 머물렀는데, 특히 소득보장 영역에서 낮은 순위(82위)를 기록해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림 4] OECD 주요 국가의 노인 상대빈곤율, 2013 [그림 5] 주요 국가의 연령집단별 자살률, 2012

주: 1) 노인 상대빈곤율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 가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치분소득의 중위값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임.

2) 헝가리는 2014년 자료이고, 한국, 미국, 네덜란드는 2013년 자료이며, 그 외 국가는 2012년 자료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또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자살률도 가장 높다. [그림 5]에서와 같이 2012년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74명에 이른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자살률은 35-64세 중장년층의 자살률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노인이 노년기에 들어서 빈곤과 고립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에 처할 만큼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앞에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았듯이 후기고령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제기 한다. 고령사회의 도래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많아지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서비스 또한 예외는 아니다. 모든 인간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는 소위 새로운 사회문제 또는 신사회적 위협의 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복지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나 사회관계에서 최대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생활과 건강에서 만족할 만

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¹⁴ 이기에 복지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 복지서비스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 보건, 교육적 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개선, 개량,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포함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인본주의 관점에 기초한다.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해소, 보호, 개입, 교육 등을 통한 그들의 복지 향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인본주의 관점은 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명’이나 ‘철학’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¹⁵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는 가족, 친족, 이웃 등 1차적 관계망을 벗어나 전문 인력이 전달하는 대인 서비스이다. 대인서비스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은 수요자 관점과 공급자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¹⁶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인구학적 변동은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서비스이며 생명을 돌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적인 서비스와는 다르다.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1961년과 1971년에 개최된 노인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서는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나 사회관계에서 최대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생활과 건강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활동과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다”라고 정의 하였다.¹⁷

인간은 자신들의 삶을 발전하기 위해 음식이나 의류, 건강보험, 또는 주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에서 삶의 직접적인 유지와는 관련이 없지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이나 기술 등을 필요로 한다. 즉 복지서비스는 속성상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¹⁸

Popple과 Leighninger(2002)는 사회복지를 최소 수준에서 사람들의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해 계획된 일련의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Reid(1996)는 사회복지를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번영을 증진하고 인식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개입이나 조직화된 행동으로 정의 하였다. Walter Friedlander(1955)는 사회복지를 삶과 건강에 있어 만족할 만한 표준을 성취하기 위해 또는 개인과 집단을 돕기 위해 설

14 지은구·김은정,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이용자 재정지원」 (서울: 나눔의 집, 2010), 20.

15 김통원·윤재영, 「사회복지서비스품질관리」 (서울: 신정, 2005), 31-32.

16 정재훈,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서울: 집문당, 2009), 36.

17 최성재·장인협,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490.

18 지은구·김은정,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이용자 재정지원」 (서울: 나눔의 집, 2010), 46-47

계된 사회제도와 서비스의 조직화된 체계로 규정하였다. Martin과 Zald(1981)는 사회복지를 사회적, 개인적인 기능을 최소한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정의 하였다. Wickenden(1965)은 사회복지가 사회질서의 더 활발한 작동과 인간의 번영을 위해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항들을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나 혜택, 프로그램, 법 등을 포괄한다고 하였다. Rescher(1972)는 사회복지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지보다 더 광범위하며, 번영의 중요한 측면인 사람과의 상호관련과 가족구성원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장과 관련된 개인적인 관련까지도 포괄한다고 언급하였다. 지은구(2003)는 사회복지의 사회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충족되는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번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보편복지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자산조사 등 수급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는 조세와 사회보장제 형태로 별도의 사회보장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 북유럽의 복지제도들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보편복지는 필요한 모든 사람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⁹

III. 후기고령사회의 성경적 관점으로 본 복지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²⁰

스피노자는 인간의 삶이란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의 동요에 불과하다고 말한다.²¹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그리스도는 병든 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며 생명의 귀중함을 보여주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성경적복지서비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성경에서의 사례를 통해 인간에 대한 귀중함과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의미와 가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성서 신학자였던 글라스고우 대학(University of Glasgow)의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 박사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보다 병들고 배고픈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을 논평하였다. 또한 백석대학 김경진 박사는 예수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빵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의술(醫術)과 의약(醫藥)이 희귀한 상황에서 죽은 자, 약귀 들린 자 등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이들도 친히 치유하셨다고 하였다.²²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통하여 생명의 귀중함에 대한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19 노대명,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6-21호(2015) :14.

20 장종현, 「백석연구소 총서2 백석학원의 설립정신」. 23.

21 프레데리크 시프테, 「우리는 매일 슬픔 한 조각을 삼킨다」, 이세진역 (서울: 문학동네, 2015), 113.

22 김경진,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대서, 2013), 6.

1. 사회복지와 성경적복지의 공통점 및 차이점

사회복지 윤리강령 전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경적복지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서 인류의 복지증진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의 체계적 노력이다.²³

성경적복지의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이웃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열악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적·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양적·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생활상의 곤란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경적 정의를 실천하며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자 가치 체계를 말한다.²⁴ 즉 영적인 복지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 기쁨, 행복이 있다.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4장18-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적복지와 사회복지의 공통점은 서로가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그 객체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환자나 장애인으로부터 건강한 자까지,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또한 그 수혜자는 모든 인간이 되며 모든 지역사회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한편 성경적복지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성경적복지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반해 사회복지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성경적복지의 복음을 수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의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들이 사회적 혹은 인간적인 만족과 성취를 위하여 도와주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²³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서울: 대학출판사, 1998), 30

²⁴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서울: 대학출판사, 1998), 32

2.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지

구약성경의 사회복지의 정신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세 율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복지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창세기 1장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복지사회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사람에게 주셨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사람과 만물들에게 주셨다 라고 하셨으므로 성경적복지는 피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영적인 복은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고, 능력을 통하여 생명력을 얻게 되며, 구원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죄를 지어 형벌을 받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았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창 3:31).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복지를 실천하신 최초의 사건이다. 넷째, 최초의 교회복지 현장은 에덴공동체로부터 출발한다. 남자의 최대의 복은 여자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였다.²⁵ 이와 같이 에덴공동체의 복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복지의 주체자이셨고, 모든 인간의 삶을 포괄하고 있으며, 완전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3.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지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지사상은 창조시에 이미 주어진 복지의 현실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소외 받는 세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고, 심적인 고통 속에 불안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며, 간음한 여인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셨다.

구체적으로 신약성경에서의 복지사상을 구약성경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성경에서는 복지가 왜 인류사회에 필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복지의 참된 실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구약성경의 율법에는 공의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신약성경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기초한 성경적복지를 말한다. 셋째, 구약성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민족 중심이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복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다. 넷째, 구약성경에서는 주로 외부적인 환경의 제약을 통하여 복지실천이 강요되었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내부적인 믿음을 통하여 자율

²⁵ 김장대, 「기독교 사회복지학 총론」, 교회복지연구회 출판부, 2006. 67

적인 복지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²⁶ 이와 같이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성경적복지 사상은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현실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4.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본 이웃사랑

누가복음10장26-37절에 나타난 선한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유명한 언급 가운데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사마리아인에 대한 본문을 인용해 본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든 기록되었으되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가 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 참여하려 할 것이고 사마리아인이 여전히 곤경에 처한 자들을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다면 결국 강도 만났던 자는 사마리아인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거나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를 경우 강도 만난 자는 결국 사마리아인이 베푸는 도움의 손길을 돕기 위해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자의 모습을 떨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의사나 욕구에 반대되는 경우를 순순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쉽게 생각하자면 강도만난 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돕는 사람들 따라 도우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사마리아인이 돕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싫어도 도와야 하는 짐을 지는 것이기도 하다. 사마리아인 때문에 도와주는

²⁶ 김장대, 「기독교 사회복지학 총론」, 교회복지연구회 출판부, 2006. 68

것이므로 실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한다고 좋아할 일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화낼 일도 아니다. 도우는데 필요한 자원도 결국에는 도움의 실질적 주체인 사마리아인이 공급해 줄 것이다. 도움의 보조자 입장에서 볼 때 원리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중단되지 않는 한 자원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²⁷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강도 만난 자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제사장 같은 종교지도자도 아니고 레위인 같은 종교인도 아닌 천대받던 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다. 삶의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고통을 체휼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전인적 관점으로 이와 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펼치는 행위가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기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²⁸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는 오직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오직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²⁹

기독교 사회복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으로서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사업이다.³⁰

예수님께서서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다(눅 10:25-37). 예수님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창 4:9)라는 가인의 질문에 대한 암시적인 반응으로 시작된 구약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즉 거울에 비친 또 다른 나이다(눅 10:36).³¹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똑같은 필요와 느낌과 소망과 열망과 권리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웃이란 그 말의 이해에 있어 한 새로운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5. 후기고령사회 노년기 절망감에 대한 극복 사례

“데살로니가전서 3장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

²⁷ 최갑중, 「백석신학저널」(서울: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 2013), 222-223.

²⁸ Cf. J. J. Pilch, ‘치유,’ in J. J. Pilch/B. J. Malina (ed., 이달 역) 「성서 언어의 사회적 의미」(서울: 한 국장로교출판사, 1998), 170-171.

²⁹ 광효문, 「기독교사회복지론」(서울: 제일법규, 2000), 5.

³⁰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서울: 대학출판사, 1998), 13.

³¹ 박영호, 「기독교사회복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69-72

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6장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성경에서는 절망을 낙망으로 설명하는데 그 의미는 지치다. ‘피곤해지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마음을 잃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출애굽기 6장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함과 주위 환경의 어려움을 절망적으로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신명기 28장4절에는 육의 눈으로 주위 환경을 바라봄으로 미치는 절망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 37장11절 역시 절망은 소망이 없으므로 스스로 멸절되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27장20절은 절망은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단정하며, “욥기 3장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 “열왕기상 19장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를 위하여 죽고 싶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절망은 자살을 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³² 그렇다면 절망에 빠져있는 성경 인물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극복 했는지 살펴보자.

(1) 고난에서 승리한 욥

“욥기1장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소개된다. 말씀을 보면, 욥은 4 천 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으로 의인이요 동방에서 제일가는 거부였다(욥 2:2-3). 어느 날 갑자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게 되면서 욥은 꿈쩍달짝도 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재산, 가정, 건강 등 가진 것의 모두를 한꺼번에 잃고,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아내의 저주(욥 2:9) 와 절친한 세 친구들의 위로가 아닌 심판자로서 하는 말들은 욥으로 하여금 극심한 절망 가운데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게 한다. 정직하고 순전한 욥의 삶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으며(욥 1:8, 2:3), 욥 자신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다(욥 9:21, 10:7, 16:17).³³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억울하고 또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었을 것이다. 사탄의 생각은 욥의 경건한 믿음이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이 아니고,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살고 있기 때문이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욥 1:9)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되고 평탄할 때가 아닌 극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며 도전하게 하신다(고전 16:13). 고난 속에서의 인내는 강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며, 욥이 인간적 한계를 넘어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⁴

³² 이근호, 「인간심리와 상한 감정 치유」 (서울: 도서출판 한글, 2003), 123-29; 조현욱, “노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 91-92

³³ 이형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2004), 361.

³⁴ 유재가, 「욥의 고난과 믿음의 승리」 (경산 도서출판예수원, 2006), 81.

(2) 절망속에서 승리한 나오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종교암흑기 시기이다. 룻기 1-4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이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나오미는 하나님의 충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땅 모압으로(룻기 1:1) 가게 된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체험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견디기 힘든 삶을 해결하기 위해 그 곳으로 갔으나, 뜻하지 않게 남편이 죽게 되고(룻기 1:3) 과부가 된다.³⁵

하나님께서서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편이며 관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때(출 22:22, 신 24:17, 신 10:18, 시 68:5)³⁶ 과부는 그 시대의 약자였다. 나오미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모압에서 결혼하여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 하였으나 10년이 지날 즈음 두 아들마저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원수관계였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남편과 아들들을 잃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 상실의 비극 가운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기근이 그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룻 1:6) 이방 며느리 룻만을 데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즐거움, 나의 즐거움)라 부르지 말고 “마라”(괴로움, 쓴 맛)라 부르라고 할 정도였다.³⁷ 고난 중의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룻 1:20-21)고 고백한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피하는 경우와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면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다. 나오미는 문제와 직면하기보다 도피하는 삶을 살았지만³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볼 수가 있다.

성경의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후기고령사회 또한 심각한 개인문제가 발생한다. 노령화에 따라 심리적, 정신적 문제 우울 및 자살문제 등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찬 삶을 살 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반복지서비스가 아닌 성경적 복지서비스만이 희망을 줄 수 있다. 성경적 복지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35 임세일, 「룻의 해피 엔딩」 (서울:양무리서원, 2000), 12.

36 백은성, “존엄한생명, 노인”. 기독교문학회.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제19회 (2002): 212-40.

37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93.

38 강준민,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서울 두란노, 2002), 20.

IV. 결 론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인구통계의 변화는 미래와 관련된 것 가운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문화를 바꾸고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기업의 마케팅전략을 바꾸고 종교문화를 바꾼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이제 남자 77세, 여자 84세로 곧 90세 평균수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평균수명 증가, 이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 이혼율 증가, 만혼의 증가 등 이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13년 1.19명) 이러한 현상들은 인구구조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문제는 좀 더 심각해서 현재 전체 가구의 27% 수준이고 2035년에는 34%로 세 가구 중 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³⁹ 하나님은 국가와 사회의 여러 가지 기관이나 복지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 기독교 공동체가 알아야 할 것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섭리에 따르는 세속적 제도를 통하여 보호되고 양육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은 필연적으로 노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과 고독과 삶에 대한 의욕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로인해 쉽게 낙심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 할 때 사회적인 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의 개선과 향상은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복지정책은 후기고령사회 노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적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성경은 태어난 인간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결국 죽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한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의 해결은 죄에 대한 문제이다. 해결책은 바로 복음인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영적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육체는 낡아지나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건해 질수 있음을 말한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동시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때 후기고령사회는 결코 불행의 시기가 아니라,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문제에 대해 영적인 돌봄을 교회 즉 믿는 자들이 해주어야 하지만 또 한편 인간은 전인적 존재이므로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 즉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도움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

³⁹ 기독교 연합신문, “통계로 보는 세상”, 2016년 3월 20일, 제1334호, 23면.

는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적인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민 (2002).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서울: 두란노.
- 곽효문 (2000).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제일법규.
- 김기원 (1998).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대학출판사.
- 김경진 (2013).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대서).
- 김장대 (2006). 『기독교 사회복지학 총론』. 서울: 교회복지연구원 출판부
- 김통원, 윤재영 (2005). 『사회복지서비스품질관리』. 서울: 신정.
- 노대명 (2015).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6-21호 14.
- 남희수 (2007).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박영호 (2001).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백은성 (2002). “존엄한생명, 노인”. 기독교문화회.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제19회: 212-40.
- 이경숙 (1994). 『구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형원 (2004).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 유재가 (2006). 『육의 고난과 믿음의 승리』. 경산: 도서출판 예수원.
- 임세일 (2000). 『루트의 해피엔딩』. 양무리 서원.
- 지은구, 김은정 (2010).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이용자 재정지원』. 서울: 나눔의 집.
- 정재훈 (2009).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서울: 집문당.
- 정경희 (2004). 『2004년도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중현 (2014). 『백석연구소 총서2 백석학원의 설립정신』. (충청남도: 백석정신아카데미). 49.
- 최성재, 장인협 (2011).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채수훈 편 (2000).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서울: 인간과복지.
- 최갑중 (2013). 『백석신학저널』 (서울: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 222-223.
- 프레데리크 시프테 (2015). 『우리는 매일 슬픔 한 조각을 삼킨다』, 이세진역 (서울: 문학동네), 113.
- Cf. J. J. Pilch, ‘치유,’ in J. J. Pilch/B. J. Malina (ed., 이달 역) 『성서 언어의 사회적 의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70-171.
- 김윤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인식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이근호, 『인간심리와 상한 감정 치유』 (서울: 도서출판 한글, 2003), 123-29; 조현옥, “노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 91-92
- 정중현 (2006).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 통계청 <http://sgis.kostat.go.kr/publicmodel/>. (검색일 2016.03.02.)
- 나우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 센터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 2016. 2. 1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http://www.bonghwa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 2016. 5. 15.
기독교 연합신문, "통계로 보는 세상", 2016년 3월 20일, 제1334호, 23면.